

稻葉默齋와 退溪學**

山崎道夫*

稻葉默齋는 佐藤直方道統傳의 사람으로 享保 17년 壬子(1733년) 11월 10일에 武州江戸濱町山伏井에서 태어났다.(迂齋는 이 때 나이 49세였다) 아버지 迂齋는 直方の 훌륭한 제자인 野田剛齋, 永井隱求와 더불어 藤門三君子의 수제자였다.

默齋의 나이가 겨우 6세 되었을 때 迂齋으로부터 句讀을 받았고, 또 文義의 講解를 받으면 곧 이것을 깨달았다 한다. 이 때에 경전의 의문나는 점을 아버지에게 여쭙어서 그의 말을 모아놓은 것이 『迂齋答問』이다. 延享 4년 16세 때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당시에 本所石原町에 살던 野田剛齋에 師事했다. 剛齋는 石原선생이라고도 불렸으며, 아버지의 同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在塾 10년에 剛齋의 學談을 스스로 필기한 것이 『石原學談』 10권이다. 그것 중 두권은 화재에 불타고 그 자필본의 일부는 田原擔庵翁이, 일부는 池上幸二郎씨가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默齋가 三宅尙齋의 훌륭한 제자인 久米訂齋를 처음으로 배운 것은 默齋가 41세인 安永元年의 일로서, 이 때에 형 廓齋古河侯를 따라 京都에 있었다. 默齋가 이를 의지하여 二條城北千本官邸에 들어서 京都에 4개월 반 동안 머물렀다. 이 길에 서울의 안팎을 유람하고 闇齋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고는 그 表題를 베껴 쓰고 붓을 잡고 瑩域墳墓의 위치를 그리고, 또 綱齋선생, 尙齋선생의 묘소에 참배하고 그 표제를 베껴 썼다.

* 國土館대 명예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6호(1982) 게재논문

이 때의 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久米訂齋翁에 알현한 일로서, 默齋의 학풍이 訂齋翁에 비슷한 바가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알현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한다. 문인 林潛齋가撰한 稻葉默齋先生傳에 「訂齋寵異先生甚至. 會談數回, 互相歡好, 如舊相識」이라고 쓰여 있다. 默齋 스스로 또 말하기를 「訂齋先生佐今日別般品格, 其他吾黨諸人 皆稟末世薄俗之氣」라 하고, 또 그 어른으로부터 받은 俗牘의 뒤에 스스로 쓰되 「余壬辰春 上京師, 見先生, 一見之間, 私窺其道德成熟之狀, 與高邁洒落之象. 所警第懶惰者, 固已萬夕」이라고 했다. 道德成熟高邁洒落之象의 두 귀절은 訂齋의 풍모를 잘 그리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天明 4년 10월 7일, 默齋 53세 때에 訂齋는 京師에서 돌아가셨다. 86세를 일기로 하셨다. 이 때에 기문의 여러 선생이 서로 찾아왔다 가고, 明和 이래로 京都의 久米訂齋, 關東의 稻葉默齋와 野田剛齋의 수제자 幸田子善이 있을 뿐이었다. 서방에 訂齋, 동방에 默齋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山崎闇齋와 그의 門流에 「久米訂齋」라고 제목을 붙이고 岡彪村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訂齋와 교유가 많은 가운데에는 稻葉默齋는 더욱 뛰어난 자로서 그 선생 尚齋(訂齋는 그의 사위이다)의 저술을 비밀히 해두라고 유언한 狼麈錄과 白雀錄도 默齋에 보이게 되었다. 또 학문도 사람도 행위도 비스름한 점이 있다. 아니 닳은 데가 없다. 訂齋는 머리만 크고 눈은 빛나고 있고 손발은 비교적 발달하지 않았다. 默齋는 손발도 발달해 있었고 재주도 있었지만 머리의 명석함은 訂齋의 쪽이 더 나았다. 이 명석함 속에는 訂齋의 단점 및 장점이 있었다. 默齋도 그의 재주에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 단점이 있어도 장점이 있으면 역시 위인이라 할 수 있다. 두 선생은 모두 崎學派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我國에 있어서도 훌륭한 인물이다. 그리하여 그의 출처에 이르러서는 더욱 잘 닳고 있고 모두 壁立萬仞汶上的 氣象이 있다. 大名들이 오백石이나 천石으로 벼슬을 주겠다고 해서 나아갈 수는 없다. 그것을 당시의 大名은 모른다. 大名 같은 이가 모른다 해도 전혀 무관심한 것이 訂齋선생인 것이다.

이 한 문장은 동쪽의 默齋, 서쪽의 訂齋라고 이르는 두 大儒의 풍운을 전해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默齋는 그의 나이 50세, 天明 원년 辛丑(1781)에 아버지 迂齋 이래로 인연이 깊은 上總國, 現千葉縣, 大綱白里町, 清名辛谷의 마을에 은거했다. 금년 3월 29일, 이곳에 默齋선생 孤松庵址의 기념비가 건립되고 필자는 그 비문의 撰文 및 謹書의 영광을 입었다. 비문은 참고로 뒤에 실었다.

문인 林潛齋의 『稻葉先生傳』에 「先生壯歲至不惑, 隱於市中及墨水(江戶市 가운데와 墨田川 가에 있다), 知命之歲, 移上總清名辛谷, 至此固閉門謝俗, 殆二十年, 終世未嘗一出其門也」라 했고, 필자는 그의 「碑陰文」에 「默坐澄心爲學의 공부에 종사한 지 10년 하고도 5년이다」라고 썼다. 孤松庵에 살았던 것은 天明 5년(1785)으로부터 寬政 11년(1799)의 말년에까지 이르는 15년간이었다.

默齋는 이 孤松庵에 기거하고 右潛齋의 글에 있듯이 굳게 문을 닫고 속세를 버리고 생을 마치고에까지 일찍이 그 문을 나오지 않았다. 가까이 99개의 마을이 있었지만 한번도 놀이를 나가지 않은 것 같다. 이미 장년시절부터 불혹에 이르기까지 江戶市 및 墨水의 家에 은거했다고 하니, 속설에 幕府의 폭정을 싫어하여 누추한 田舎에 韜晦했다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 천성이 그러하여서 沈潛으로써 자기의 참다움을 기른 것과 같이 도학의 大成과 문인의 전수에 전심으로 종사했다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直方派의 도학은 默齋에 이르러서 집대성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默齋는 21세의 약관에 清名辛谷 땅에 들어왔었다. 아버지 迂齋이 지은 八道の 책은 直方の 『道學標的』(直方は 藤門四部書라고 하는 講學鞭策錄인 桃釋錄, 鬼神集說, 道學標的의 四部書가 있다.)의 가운데 孔·曾·思·孟과 周程, 張·朱 등 여덟 선생의 행장을 쓴 것을 迂齋의 문인 上總八子에의 토산물로 하여 지참했다. 그 곳에 들어가 八子の 대표 鈴木養察의 姬島學舎에 살면서 강의를 하다가 집에 어려운 일이 있

어 곧 서울로 돌아가고 뒤에 된 것이 이른바 『姬島講義』이다. 姬島는 養察이 산 현재 成東町의 한 지명이다. 默齋 21세 때의 이 姬島講義는 참으로 精采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요즈음에는 언급치 않는다. 말하자면 精采란 말은 默齋의 생애에 가장 애용한 말로서 그 근원은 주자의 말씀에 나온다.

그리고 默齋門에 武藏忍藩의 三上是庵이 나온다. 이 是庵의 門에 石井周庵이 있다. 周庵은 地元淸名辛谷의 출신이다. 그것이 直方派의 道統系이다.

三上是庵에 「麓의 知邊」의 一書가 있다. 佐藤派道學入門의 一書이다. 이 麓의 知邊에 부록으로서 「道統系」라 하는 도표가 있다. 이 글의 끝에 자료로서 실었다.

이 도통계는 중국과 일본을 나누어, 중국에서는 주자로부터 薛敬軒에 이르고, 薛敬軒에게서 받은 것으로서 李退溪를 들고 있는 것은 진실로 팔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學祖 闇齋를 세우고 세파의 도통계보를 기록했으나 가운데에 直方을 둔다. 直方은 三派 가운데서 연장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도학의 진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순수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 是庵에 있어서는 자기의 학문이 나온 곳이고, 그러므로 중심에 두고 이것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

三宅尙齋인데 尾張 中村習齋에 「道統圖」의 一書가 있다. 거기에는 중국과 일본의 도통계의 圖示와 같이 崎門三派에 대하여 평한 곳이 있다.

먼저 佐藤先生(直方)이라 제목하고 「山崎先生の 문인, 발명, 더욱 많다. 心術을 주로 하고(방점은 필자가 붙인 것이다), 靜坐를 가르쳤다. 道學標的, 講學鞭策錄, 敬之說, 靜坐說이 있어 국어로 표시하셨으니 독실하고도 發越하다. 識者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고, 다음에 淺見先生(綱齋)으로서는 「무릇 학술과 명분을 중히 하시고(방점은 필자가 붙인 것이다) 精微함을 지극히 했다. 聖學圖는 一代의 학술이다. 氏族辨證, 靖憲遺言을 저술했다. 아울러 古人未發의 格論,

유언, 선생의 출처의 心을 살핀 것이다.»라 하였고, 三宅선생은 「山崎 선생 만년의 문인이다. 小大의 辨(소학·대학의 학술)을 중히 여기고 道體를 상세히 하여 대학, 중용, 易에 마음을 깊이하고 저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資講의 필기가 있다.(현재 名古屋의 蓬左文庫에 遊學資講에 보존되어 있다.)

直方の 「心術을 주로 하고」 綱齋의 「명분을 중히 하며」, 尙齋의 「道體를 자세히 하는」 등의 이 말은 세 분의 학문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尙齋는 더욱 학술적이며, 앞의 道體를 상세히 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상세히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道體의 妙를 참으로 증득한 이는 直方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문인 日原이 기록한 바로는 그의 『默齋先生學話』 권4에서는 「道體는 直方 선생이 말씀하시다.」 「대의라는 것은 淺見선생이 기술하다.」 「정밀한 것은 三宅선생이다.」고 한것이 더욱 肯綮를 얻은 평가로서 생각된다. 心術을 주로하고 道體를 觀하는 일이 깊었던 直方の 학문은 퇴계의 心法을 중히 여기는 학술에 더욱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直方은 전술한 藤門四部の 밖에 門弟子 필독의 책으로서 주자의 『訓門人』과 퇴계의 『朱子書節要』를 든다. 또 直方은 藤門三子에 주되 『冬至文』을 쓰고 道の 負荷를 三子에게 부축하고 또한 「朝鮮李退溪之後, 欲負荷此道者, 吾未聞其人焉」이라고 하고, 道統의 유지자로서 퇴계를 주자 이후의 제일인자라고 칭찬한다. 退溪와 直方은 心通默會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默齋는 『冬至文筆記』 乾坤 2冊이 있다. 어느 것이나 上總에 들어가서 강의한 것이며, 또 문하생의 필록이다. 내가 갖고 있는 『冬至文筆記』는 乾卷의 끝에 安井市藏 자필본의 識語가 있다. 安井市藏은 鈴木養察의 손자인 養齋의 문인으로서 默齋의 孫弟子가 되는 사람이며 보통 清左衛라 부르고 강의의 錄은 문인 花澤의 다음이다. 그 坤卷은 문인 篠原惟秀의 기록에 의한다. 어느 것이나 上總土地의 문인이다. 그런데 이 『冬至文講義』 乾卷은(默齋 56세) 「朝鮮李退溪之後, 欲負荷此道者, 吾

未聞其人焉」이라고 말하였고, 「근래에 한 사람을 냈단 말이다. 이 한 사람을 내는 일, 심히 끊어오르는 일이니라. 이퇴계의 일은 『自省錄』과 또 문집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節要 20冊을 낸 것이니라. 이 두 가지로 이퇴계가 알려졌단 말이야 直方선생의 통찰력이다. 『自省錄』이 빛나는 일은 없으나 주자를 마치 답습했다는 小手前才朱子이다. 小手前이라고 하나 부끄러운 字이다. 喻子를 그냥(적게) 답습했다는 말이다. 또 이퇴계의 탁월함이 돋보인단 말이다.」라고 直方이 퇴계를 받아들인 일에 대하여 이같이 강의했다. 『自省錄』과 『朱子節要』의 두 책으로 이퇴계가 알려졌다고 하고 그것을 찾아낸 것은 直方の 통찰력이다. 『自省錄』은 山崎闇齋이 慶安 3년(1650) 30세 때에 처음으로 그 글을 읽고 감동하며 자기의 학문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기술했으며 肥後(熊本)의 大塚退野가 양명학을 버리고 주자학에 들어간 것은 『自省錄』에 의하여 程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自省錄』은 퇴계가 문인과 知友에게 준 편지 22통을 스스로 撰해서 자기 반성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直方은 주자의 『訓門人』과 퇴계의 『朱子書節要』의 두 책을 문하생 필독의 책으로 하고 교육했다. 直方の 뛰어난 견해가 이에 의하여 알려졌다. 이로부터 直方派에서는 이 두 책을 존중하고 課會를 개최하여 연구에 몰두하였다.

다음에는 두 책의 默齋 강의를 주로 하고, 直方派, 특히 默齋의 이퇴계 존신의 모양을 보기로 하자.

節要의 序에 퇴계가, 論語는 하마터면 立身의 도구로 되나 節要에는 그것이 없다 라고 하고 節要를 읽을 것을 권하는 말이 있다.

昔聖人之教詩書禮樂皆在而程朱稱述乃以論語爲最切於學問者其意亦猶是也
嗚呼論語一書既足以入道矣今人之於此亦但務誦說而不以求道爲心者爲利所
誘奪也此書(朱子書節要)有論語之旨而無誘奪之害然則將使學者感發興起而
從事於眞知實踐者舍是書何以哉라 한다. (방점은 원문에 붙은 것 그대로
이며, 원본은 大塚退野手批本이라 부르는 것이며, 지금은 楠本文庫를

本으로하여 國土館大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警世의 箴言이다. 가로되 論語는 入道의 책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만 誦說을 힘쓰나 도를 구하는 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利만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朱子書節要』에는 誘奪의 해는 없다. 학자로 하여금 감발흥기케 하며 진지실천에 종사케 하는 것이다. 이 책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이것을 찾을 수는 없다고 높이 평가한다. 퇴계의 知見이 이른 바이다. 佐藤派에 있어서는 知見의 말을 지극히 존중하며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윗글에 대해 默齋는 節要강의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의의 語는 그대로이나 適宜補注를 더했다.

節要의 序에 주자의 책을 論語보다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知見의 뜻이다. 論語의 위라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論語보다 節要가 훌륭하다고 함에는 이유가 있다. 論語는 학자의 밥이 되며 씨앗이 되는 것이다.

論語는 학자의 飯種이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단언한다. 다음은 默齋 사상의 중요한 것이다.

論語를 다스림은 專門의 學이며, 우리의 생업이 되며 지금 大名의 扶持(武士의 扶持米, 오늘날의 급여)가 되는 것도 論語이다.

大名에 소명되어 扶持米를 받는 論語가 밥의 종자가 되었다.

선생, 又疊을 두들기며 가로되 一念之微(명리에 팔리는 적은 마음) 氣味가 나쁜데 大名에게 사용되는 것도 論語는 媒가 된다. 節要로 말하면, 節要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것이며, 사람마다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骨髓나, 이 퇴계의 평범한 입으로부터 理가 갈 데 없이 뿔뿔히다. 예 리함은 이렇게 말했다. 변한 것을 말하다가 보고 취한 바이다.

이퇴계의 평범한 입이라는 것은 퇴계학의 平實한 바이며, 理가 갈 데 없다라는 것은 理의 貫通하는 뜻이나라, 보고 취한 것은 江戶의 말로 보고 안다는 것, 말하자면 知見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필요없는 것이지만 모두 이퇴계를 가깝게 하기 때문이다.

기질개조의 學은 程, 주자학의 본령이지만 直方은 지금 그 사람의 몸에 구비되어 있는 기질의 위에서 學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는다. 哲人, 達者의 견해이다. 默齋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直方の 견해의 높음이 학문에 있어서는 기질은 조금도 나오지 않았군. 그 증거는 주자의 뒤에 빛남은(깨끗하고 빛나는 기질 한층 돋보이는 것) 薛文靖이다. 그것을 취하지 않고 이퇴계를 취한 분이 直方이다. 이퇴계는 지나치지 않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퇴계를 見出한 것이 直方선생의 통찰력이다.

지나치지 않은 사람, 지나치다 함은 江戶의 말로 功을 자랑한다는 뜻도 있다. 말하자면 기질상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한 점에 잡히지 않으며 학문하는 점으로 李退溪를 見出한 것은 우리 直方선생의 통찰력이라고 높이 평가된다.

그리고 전술한 冬至文 가운데에 「朝鮮李退溪之後欲負荷此道者吾未聞其人焉」이라 했는데, 퇴계를 들고 왜 學祖인 闇齋선생을 취하지 않았는가가 문제이다. 『冬至文講義』 가운데서 말한 默齋說은 참고가 된다.

吾未聞其人이라 했으나 인정없는 것 같도다. 이미 山崎선생이 大器量大學才인데 위마져 이퇴계보다 폭이 넓은 것이다. 不聞其人이라고 하나 이것이 直方선생의 대단히 사려있는 점이다. 山崎선생은 器量과 學才와 폭이 이퇴계의 위를 넘어서는 사람이지만 여기가 山崎선생의 斟酌있는 점으로 여겨진다.

이 점이 山崎선생에 대해서 짐작이 있는 것, 즉 闇齋선생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려의 의미이다.

近思의 序도 直方선생의 이것 저것 말하고, 읽지 않은 것도 기질에
 付한 것은 아니고, 生粹한 것으로 一分一點 어떤 것인가하고 생각하여
 서는 直方선생의 承知가 많은 것이다.

이 말은 깊은 함축성이 내재한 秘語로 잘 새겨 들어야 한다. 一默一
 分이라도 理에 틈에 있어서는 直方은 承知하지 않는다. 理 위에서 전혀
 生粹한 곳이 直方の 학이며, 그것이 또한 佐藤派의 신조로 하는 것이
 다.

故로 後述하는 『朱子書節要』 강의의 가운데 默齋는 山崎선생의 학문은
 주자와 통하지만 神道에 되어 있는 것이 나쁘다.

라고 遠慮會釋 없이 말한다. 이것이 默齋를 호걸이라고 하는 한 단면이
 다. 默齋이 이르기를,

心の 밑바닥에 조금이라도 깨끗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道統을 전수했다
 해도 물샷 틈이 있다. 여기에 걸리면 手本이 젖지 않는다.

물샷 틈은 여분의 물인데 즉 生粹를害하는 것, 이 견해가 「直方선생
 의 승지하지 않는 것」이며, 學祖 闇齋선생을 덮어두고 이퇴계를 높인
 것은 이같은 이유로 말미암은 것이리라 생각된다.

전술한 것같이 直方은 주자의 『訓門人』, 퇴계의 『朱子書節要』를 문인
 교육의 제일서로 했다. 默齋 또한 선생의 말씀을 받들어 『默齋先生 訓
 門人節要 開卷講義』가 문인의 필록에 의해서 남겨져 있다. 寬政 원년,
 8월 13일, 우선 첫째로 문인 鵜澤恭節謹識의 序가 있다. 그것에 의하면
 直方이 먼저 三子에게 이 책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冬至文이 완성
 된 翌年 享保 2년 丁酉(1717)에 直方선생이 稻葉迂齋, 野田剛齋, 永井
 隱求 三子에게 『訓門人』과 『朱子書節要』를 읽히게 했었다고 한다. 『訓

門人』에 대해서 直方은 말하기를, 「朱子教人之明訓, 語類文集無所不旨矣. 而於此篇, 則其大喫緊切當者, 又愈夫就經釋義之或不盡其餘意十分處者也矣.」라고 한다. 『訓門人』은 『朱子書節要』와 같이 直方 전수의 책이다. 강의의 기록자는 福俵村의 사람 篠原惟秀라고 한다. 上總 八子 이래로 이곳에 도학이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訓門人 開卷講義』 서문에 諸老先生訓門人會約이 있다. 날짜를 정하고 會正을 두고 엄한 會約이 9개의 조항으로 기록되고 다시 요지가 회약과 함께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회약의 결미에 享保 17년 壬子 7월 4일이라고 되어 있다. 이 때에 迂齋의 나이 49세였다. 默齋는 바로 이 해에 태어난 것이다. 결들여 기록하면 節要開卷大意序는 문인 篠原惟秀의 謹識이고 寬政 2년 庚戌 正月 16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訓門人』의 강의에 계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默齋가 59세 때의 일이다. 그리하여 諸先生朱書節要課會之規는 和文으로 기록되어 9개의 조항은 다시 和文으로 요지가 기록되었고 결문에 享保 庚子 7월 17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享保 5년(1720)의 일로서 먼저 기록한 訓門人의 회약은 享保 17년(1732)으로 주자節要의 課會가 12년 전에 이미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享保 5년의 전 해 己亥 4년에 直方은 70세로서 죽었다. 直方이 죽고 즉시 朱子書節要의 課會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朱子書節要課會之記日附의 다음에, 과회에 참가한 소위 모든 선생의 氏名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조사해보니 直方이 죽은 바로 뒤에 문인의 概觀이 가능하게 되어 흥미가 있다. 기재의 순서에 따라 이것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稻葉迂齋, 이때 나이 37세. 野田剛齋 31세, 永井隱求 32세로 藤門의 세 군자가 나온다. 會規에 「先輩一人可爲會正事」라고 한 것에 의하여 필두의 迂齋가 바로 會正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列記된 인명을 적는다.

澤一(37세로서 筑前國出身), 酒井脩敬(上總道學의 端緒로서 幕史), 天木時中(24세, 처음에는 直方의 문하에 있었으나 후에는 尙齋의 문인으로 돌아갔다.), 竹內一郎左衛文(闇齋門人, 松阪사람).

다음에 甲辰 7월 입회한 佐藤彦八 名은 就正, 直方의 아들로 그 때 나이가 16살, 더욱이 이 사람은 迂齋門에 들었다. 39세에 죽었다. 갑진년은 享保 9년 개강으로부터 4년 늦게 入塾. 계속해 丙午 11월 享保 11년에 『道學標的』에 발문을 썼다.

長谷川觀水가 입숙, 그 후의 입회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小野崎舍人, 長野宇右衛門, 多田東溪 이 사람은 뒤에 尙齋의 문하에 들어갔다. 野田剛齋의 딸을娶한 野澤十九郎도 入塾했다. 이상 13명, 수는 많지 않다. 오히려 佐藤派에서 쓰는 吾黨과 吾學人の 과회로서 다른 문하에 俗流한 자는 가담되지 않는데 이를 「峻門風」이라 한다. 이 학파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三上是庵에게 「麓의 입문서라는 책이 하나 있다. 佐藤派 도학입문의 필수서적이다. 그 책에, 吾黨의 門風이라고 함은 다만 선배로부터 서로 전하는 학술에 많이 또는 조금도 첨가하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峻門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또 선배에 대해서 「山崎先生 이래 默齋先生에 이르기까지 先達遺事에 보이는 우리가 모두 吾黨의 선배이다.」라고 한다. 「諸老」는 「吾黨의 老先生을 한테 뭉쳐서 부를 때에 諸老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訓門人開卷講義와 함께 朱子書節要에 나오는 默齋강의 가운데서 그의 퇴계관에 대하여 적어 보기로 하자.

學祖 闇齋가 퇴계의『自省錄』에 감동하였고 直方이 그의 「冬至文」에서 퇴계를 높이 평가한 이래로 直方門流에서는 특히 퇴계에 대하여 경의와 존숭을 더욱 더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默齋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訓門人の 講義에 默齋는 말하기를,

주자에 근접하려면 어류문집을 읽음이 좋다. 먼저 그 손잡이가 訓門人節要이다.

어류문집을 읽으려 할 때는 먼저 訓門人節要를 읽으라고 가르친다.

節要是 여덟 제자와 왕복한 편지이다. 『訓門人』은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한 것으로 거기서 辛田君(剛齋門의 辛田誠之)이 『訓門人』을 읽으면 주자의 直弟子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보면 『訓門人』에 먼 것은 주자학이 아니다. 지금 『訓門人』을 듣고도 모르는 주자학자도 있다. 그것은 주자학이 아니다. 孔孟의 取次로 하는 것이라. 더욱이 사서의 註만으로도 주자학을 이해할 수 있지만 節要訓門人을 모름은 말은 많되 주자학이라.

라고 두 책의 진의를 강조한다. 예전에 閻齋의 제자 永田養庵이 備後の 福山에 돌아갈 때 귀국해서 무엇을 읽을까 하여 嘉先生(閻齋를 보통 家右衛門이라고 부른다)에게 물었더니,

『訓門人』이다. 『訓門人』이라고 말한 것이다. 養庵이 고향에서 열심히 읽고 이것으로 학문을 쌓으리다. 그 뒤에 直方선생을 처음으로 迂齋로부터 諸先輩를 끊임없이 읽고 迂齋는 만년에 이르러 70년까지 이 訓門人會가 끊어진 일이 없다.

直方이 죽은 다음 해는 享保 5년(1720)으로 그 해에 節要의 과회가 먼저 설치되었다. 默齋의 訓門人講義는 寬政 원년(1789)에 시작되었다. 이 사이가 약 70년이다.

금일 某(默齋)를 쫓는 자도 『訓門人』을 읽지 못한 동안은 주자학의 외곽이니라. 주자학의 범위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라고 엄하게 가르쳤다. 또 이 강의에서도, 默齋가 冬至文의 강의에서도 말한 것 같이 訓門人과 節要에는 명리에는 도움이 없다고 강조한다.

『訓門人』을 보는 데도 지극히 단적인 것이 있다. 왜냐하면 『訓門人』을 爲己의 학이라 하니 위도 없는 일로서 좋은 것이 있다. 이것이야 이퇴계의 節要序에 쓰여 있다. 俗學은 위기를 모른다. 위기의 학이라 하지만 論語보다 나은 것은 없다. 거기서 今에 論語, 孟子를 읽는 것은 위

기이다.

라고 하여 위기의 학으로서 論語와 孟子를 제일로 들었다.

論, 孟이 손에 들어오면 大名衆으로부터 벼슬을 주겠다고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扶持方을 취하는 씨앗이 되는 일이 있다. 사서를 媒로 해서 扶持方이 되면 사서가 명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 된다. 과거의 圈과 點은 필자, 사서를 읽는 자의 箴言이다. 節要와 訓門人이 끝나면 이 쪽에 쓰겠다고 하는 大名은 없기 때문에 利害에는 덕도 손도 되지 않는다. 뿌리로부터 利誘의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한층 더 爲己를 함에 제일인 것이다.

節要와 訓門人에는 利誘의 조력이 없으니까 이 점으로 보면 爲己를 하는 제일의 策이라 할 수 있다.

이 뜻은 퇴계가 말한 바로서 사소한 일이 아니라 祿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어서 마음 한 구석이라도 전혀 남의 기분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성인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친절한 것이라고 節要의 序에 퇴계가 말한 곳을 稱揚하고 있다. 다음에 節要의 강의에서 默齋의 말한 바를 보자.

吾黨의 학문이 잡을 곳은 대학의 8조목과 근사록의 14편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直方선생의 훌륭한 식견이 이퇴계를 파악했다. 저것이 直方선생의 취향이다. 그러므로 吾學은 저기에 두개의 커다란 취향이 있는 것이다. 금일 여기에 와서 학문하는 것도 저 취향을 把持處로 이해함이 옳다.

높은 이퇴계의 高等은 高蹈인가, 高等인가 오늘에는 高等으로 한다. 直方선생의 고상한 식견을 갖고 고등한 이퇴계를 취했다. 이것이 哲理에 徹하는 直方の 취향으로 吾黨의 학문은 여기에 커다란 취향이 있다고 한다. 퇴계학이 일본에 들어와 直方으로부터 默齋에 이르러 그 본령

을 보게 됐다고 하는 데에 特筆할 일이다. 그러므로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某(默齋)는 일찍이 말한다. 공자를 배운다고 하는 것보다 주자를 배운다고 함이 좋다. 주자학은 공자학이기 때문에 공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들리지만, 주자학을 배운다고 말함으로써 학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주자를 배운다고 말하려면 이퇴계를 인도하는 것이 파지처가 된다. 여기가 오늘날의 발견처이다. 가령 이와 같은 단계가 되면 밖으로부터 들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세울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남들은 이야기해도, 이것이 이쪽에 취향이 있는 것으로서 秘藏하는 것이다. 이퇴계선생을 直方선생이 발견해 알아냈다고 하나 대체로 일반적인 눈이 높은 것은 아니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저 고상한 直方선생이 고등한 이퇴계를 찾아냈다고 하나 잘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吾黨의 諸賢이 비장할 곳이다.

주자학을 배우려면 이퇴계의 인도로써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이 默齋가 발견한 것이며, 스스로 비장하는 바이다. 吾黨의 제현이 비장할 바이기도 하다고 한다. 도학상에 호걸로 일컬어지는 默齋가 이같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말한 것은 直方으로부터 默齋에 이르는 도학의 신념이라 본다.

默齋는 또 학통을 논하고 특히 퇴계학을 칭양한다.

伊洛淵源의 續錄에 주자로부터 훌륭한 사람을 많이 듣고 있으나, 그 가운데 張南軒만이 조금 된 사람이다.

라 하고 다음에

주자의 제자들도 많이 실었지만 그것은 다만 실었을 뿐이다. 주자의 제자 가운데도 표준을 얻은 자는 黃勉齋, 蔡九峯 뿐이며 宋 이래로 元明의 間叢生儒者는 이것이지만 주자의 연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薛文淸, 李退溪 뿐이다. 그밖에 도통을 전수한 자는 전혀 없다. 儲是를 말하나 퇴계에 기대가 크다.

라고 도통의 전수를 薛文淸과 이퇴계에 둔다. 그러므로 이퇴계에 기대하고 배우는 것이 크다고 말하며 薛文淸과 이퇴계를 비교하여 우열을 말한다.

薛文淸도 이퇴계도 그 어느쪽도 주자학을 잘 얻었으나 薛文淸은 식견이 높은 사람이고, 이퇴계는 아무 것도 없는 것같은 학문이지만 이것이 이퇴계가 도를 얻은 바이니 평범한 곳에 오묘함이 있다.

퇴계의 학문을 평범한 곳에 오묘함이 있다고 말한 것은 볼 만한 것이다.

그 경우 평범에 있어서는 薛文淸보다 이퇴계가 우위이다. 지금 읽어 보아라. 독서록은 재미있고 『自省錄』은 반짝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볼 곳이 있다.

참으로 흥미할 만한 默齋의 말이다.

佐藤直方에게 독서록발문이 있으니 말미에 「方知薛氏之所見，度越元明諸儒」라고 아뢰고, 文淸의 학문을 칭찬하고 있다. 是庵이 그의 도통계에 주자로부터 薛文淸, 李退溪로 한 것은 直方에서 처음 시작했다.

또 默齋는 퇴계의 학문의 우수함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한다.

直方선생이 어느 때에 迂齋와 담화를 함에 薛文淸은 할머니의 차를 마시는 것 같고, 이퇴계는 처녀의 차를 마시는 것 같다고 했다. 진실로 이것은 折紙傳授이다(종이에 써서 秘傳을 전하는 것). 이 말은 차를 끓이는 법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파와 처녀라는 것, 薛文淸은 것처럼 식견이 높지만 앞이 막혔다. 隨分學問은 좋지만 저것으로 끝이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聖人을 배우는 일이기에 성인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일찍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또 노파와 처녀의 차 끓이는 데 비유하고, 노파에게는 진보가 없고

치녀에게는 진보가 있다고 하여 이퇴계를 이것에 비유한 것은 재미있다.

이퇴계는 주자를 표적으로 하여 생애股引으로 달리는 사람인 까닭에 학문에 몇년 안 걸린다. 이 때문에 죽은 주자가 살아서 일하는 것 같다. 이것을 孔門에 끌어들이 말하면 薛文清은 曾點과 같고, 이퇴계는 顏子와 같다. 안자는 공자를 따라가지는 못했으나 공자를 따라갈 수 있었을 때에 죽었다.

伊川の 顏子好學論에 안자의 학문에 대해 「其與聖人相去一息」이라고 말했고 또 「假之以年則不日而化矣」라고 말하고 있다. 서로 부합되는 것이다.

안자는 30에 죽고 퇴계는 70에 죽었다. 그러나 허리를 걸치지 못한 곳은 누구나 같은 것이다.

라고 이르고, 다시 또 말을 더 붙여 하고 있다.

이퇴계는 걸으면서 죽었고, 薛文清은 앉아서 죽은 것 같다. 앉은 것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일어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애股引으로 달리고 있는 그이기에 학문에 나이가 안 든다고 말함은 묘하다.

사실 퇴계의 연보에 의해 알아보아도 퇴계는 선조 3년(1570) 12월 8일 70세로 죽었으나 그 전 날인 7일 「庚子命門人李德弘司書籍」이라고 있고, 12월 4일 「丁酉命兄子穉書遺戒」, 또 「午時見諸生」이라고 있다. 12월 3일 「丙申命子弟錄還他人書籍戒勿遺失」이라고 있고, 11월에는 奇高峯에 답해서 『大學』의 致知·格物說에 대하여 정정하고 있다. 11월 「己卯答奇明彥書改致知格物說」이 있다.

참으로 默齋가 말한 바와 같이 「걸으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默齋도 역시 그러하다. 默齋에게는 最晩年의 기록 『六八錄』이 있다. 죽은 해인 68세의 기록이 있는데 진실로 浩瀚한 大部의 隨得錄이 있다. 默齋는 寬政 11년(1799) 11월 1일에 죽었으나 『六八錄』 가운데에 10월 24일의 기록에 「聖人專是道心秋月照寒水」의 기록이 있다. 「秋月照寒水」의 귀절은 주자의 「齋居感興」 12수의 제9수 가운데의 시구에 「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에 나오는 것인데 佐藤派에서는 주자의 이 문구를 鑑戒의 말로 傳誦하여 온 것이다. 默齋도 역시 스스로 말한 것 같이 「걸으면서 죽었다」고 남들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默齋에게는 또 直方의 도학표적을 강의한 「默齋道學標的講義」가 있다. 그것의 「講後餘錄」에 퇴계의 학문에는 「急遽 淺迫이 없다」라고 한 것 또한 볼 만한 것이다. 이것을 인용하여 이 논문의 결어를 삼고자 한다.

直方선생의 高見으로 이퇴계를 존경함은 끝이 없으나 이퇴계에게는 急遽淺迫이 없다. 浹洽而貫通하는 점이 있다. 그러면 공자를 이은 자는 주자, 주자를 이은 자는 이퇴계다. 이퇴계를 대단치 않은 것처럼 생각 하나 그것은 量(雜學)이며 깨달은 학문이다. 直方선생이 만년에 동지문을 짓고(直方은 70세에 죽었으나 동지문은 67세 동짓날에 완성됐다.) 퇴계에 그치게 된것은 道流의 안목이다.

위의 「道學標的講義」는 寬政 2년(1790) 庚戌 12월에 완성된 것으로 默齋가 50세에 孤松庵에 있을 때의 강의한 것으로 기록한 사람은 押掘村의 高宮文七이라 한다.

默齋의 『六八錄』에

喫酒一合, 詩一首成, 是一斗百篇矣.

이라 하고, 또

秋日炎熱可厭可惡, 理致不高而議論多者類此.

라 하니, 앞의 것은 默齋의 호쾌한 품격이 드러나 있고, 뒤의 것은 퇴계와 默齋를 은근히 契合하려는 생각이 있다.

(퇴계학연구원 譯)